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4월2일(금)
...(음력 2월 21일)...
Пятница
2 апреля 2021г.
№ 13 (1193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2일은 유명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1805년-1875년)의 탄생일이다. 안데르센 작가의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의 시와 이야기는 125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안데르센의 탄생일을 '국제동화책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을 앞두고 사할린주 아동도서관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4월2일에는 문학 강연과 안데르센 창작에 대한 퀴즈대회를 연다.

(취재: 이예식 기자)

사할린주 정부, 2021년 도로 국가기획의 계획 설명

올해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에 13만m²의 아스팔트를 포장할 계획이다. 차량도로 정비에는 네웬스크-토마리-체호브 마을 경계의 샤호초르스크 공항, 노보시베르스크코예와 크라스노고르스크 지역이다. 남사할린 광역 도시권 북서 우회도로의 개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레닌 거리, 우크라인스카야, 4번 젤레즈노도로즈나야, 소베트스카야 거리에 아스팔트를 포장한다. 2021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도로'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버스 정류장 32개소 개설, 28km이상의 보행자 및 건널목 조성, 13.7km 가로등 전선 설치, 18개 횡단보도, 신호등 2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국가기획 덕으로 29km 이상의 도로가 표준화되었다.

중요한 정책 중 흡스크 구역의 코스트롭스코예 주요 도로의 보수 공사는 연방 정부의 추가 예산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건설계획 지역인 노워알렉산드롭스키의 크라스노셀스키 하천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포그라니츠나야 도로(콤폴스카야에서 고리키까지) 건설이 완료되어 도심 거리가 향상되었다. 또한 달네에 마을과 올로츠키 마을 사이에 도로가 개건되어 도로 폭도 9미터로 늘어났다.

18000회분의 '스푸트니크V' 사할린에 도착

사할린주가 대규모 코로나19백신을 받은 가운데 새로이 '스푸트니크V' 백신 1만8천 회분이 공급되어 사할린 각 지역의 보건소로 배송되었다.

사할린주 보건부의 치료과 텐 밀란 과장은 의료기관들에 백신 보존을 위한 특수 냉동고가 준비됐고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료진들의 업무 일정도 짜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3월 31일(수) 현재 사할린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2,015명, 21,662명이 퇴원, 41명이 사망, 31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38,564명이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이 중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은 29,081명이다. 27,595명이 백신 접종을 예약한 상태이다. 노년층의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므로 백신 접종은 1차 감염만 아니라 재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사할린의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는 "새로운 면역체계가 필요하다. 재감염이 발생하는지는 개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노년층을 돌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은 주내 전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으며, 국가 공식사이트와 전화 1-300으로 걸어 예약하고, 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사할린 항구 건설 공지

사할린 동부 해안에 가스, 원유, 석탄 현대적 운반 종합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건설에 대한 특허권 협약을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승인했다.

이 시설은 마카로브와 포로나이스크 구역들 경계에 위치하여 총8만 톤까지 적재한 운송 선박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총투자액은 359억 루블리이며, 이에 대한 제반시설 구축 예산 비용으로 39억6천만 루블리가 책정될 전망이다.

기획 규정상 석탄 터미널의 수용량은 연간 5백만 톤이고, 원유는 550만 톤, 응축 액화천연가스는 280만 톤이다. 이외에도 종합 연료 공급 및 적재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특허권으로 투자자들은 49년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합기지 가동은 협약 체결 후 6년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채택된 결정으로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경제의 다각화 및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 사할린의 물류 잠재력을 확장시켜 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단신

푸틴 대통령, 초이 아니타 가수에게 러시아 연방 인민 아티스트 칭호 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초이(쵸이) 아니타 가수에게 러시아 연방 인민 아티스트 칭호를 수여했다.

이 칭호는 예술 분야에 큰 공로로 수여한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의 이름난 가수 초이 아니타는 2월에 50회 생일을 맞이했다

사할린,
유년부 알파인스키 대회 개최

3월 29일 - 3월 31일까지 '조국의 아침' U12(2009-2010년생)와 U14(2007-2008년생) 전국 유소년 알파인 스키대회가 개최됐다.

〈고르니 워즈두흐〉스포츠 관광단지의 '자파드' 트랙에는 연해주, 캄차트카,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마가단, 사할린,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선수들 99명이 모였다.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U-12 부문에서 '사할린-1'팀이 8개의 메달을 획득해 우승 차지, 2위에 '사할린-2'팀, 3위는 캄차트카팀이 차지했고, U-14부문에서도 '사할린-1'팀이 7개의 메달 획득으로 우승, 2위는 '사할린-2'팀이 차지, 3위는 마가단팀이 차지했다.

이와쇼브 의원, 코르사코브의
시장으로 선출

코르사코브시에 약 1년간 시장 공석이던 상태에서 3월31일 의원회의에서 19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 찬성표로 주두마의 부의장인 알렉산드르 이와쇼브를 새로운 시장으로 선출해 가결했다. 2명은 투표에 참석 안하기로 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의 달 발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도시지역 청소 기간이 발표되었다.

전국 및 전 도시 지역의 토요일 정돈일은 4월 17일과 24일이며, '깨끗한 금요일'은 4월 9일, 16일, 30일로 계획되었다.

도시 공공서비스에 주민 단체 및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할린의 사회운동가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할린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비영리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 기술' 비영리단체를 위한 실습 세미나가 열린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정부와 사할린주 사회원이 주최하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라즈비치예(발전)' 보충 전문교육 및 컨설팅의 비영리 자치단체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진행한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에진스트워(통일)〉스포츠 클럽, 30주년 기념

지난 30일(화) 코르사코브 〈에진스트워(단결)〉스포츠 클럽이 30주년을 기념하였다. 이날 기념행사로 품새 경기를 열어 이에 12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날 클럽 사범들과 선수들에게 사할린 주두마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부의장, 아나톨리 코츠네프 의원, 코르사코브시 그리고리 골로즈니코브 부시장, 코르사코브 시의회 류드밀라 흐미즈 의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등이 축하했다. 이들은 클럽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고 어린이들에게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1년에 창설부터 〈에진스트워〉스포츠 클럽의 관장(총감독)을 이춘식 씨가 맡고 있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그는 코르사코브에 태권도 보급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그의 아들 세르게이와 딸 나탈리아도 태권도 사범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손자들도 태권도 선수로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클럽은 30년 동안 스포츠 명인(가장 높은 급수) 5명, 스포츠 예비 전문가 58명, 국제수준 심판 1명을 양



성하였다. 그의 선수 304명은 세계 태권도연맹의 검은 띠를 획득했다.

(본사 기자)
(사진 코르사코브
시행정부 제공)

리 알렉산드르 감독, 작품 〈개〉 연극 무대에 올려

체호브 연극센터의 배우 리 알렉산드르(38)는 얼마 전에 연기직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모스크바 영화감독 고급과정학교를 졸업한 알렉산드르는 〈심장 박동〉 단편 영화를 비롯해 여러 단편들을 감독했고 장편 영화 한 편을 제작했다.

지난 30일(화) 그가 감독한 연극 〈개〉(극본: 발렌티나 라스노고로브)가 사할린 인형극장 무대에 올랐다. 이 연극은 사할린 연극 활동가연맹이 추진하는 〈열린 무대〉기획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연극의 줄거리는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는 남자가 어느 날 우연히 강아지를 발견해 이 강아지가 남자의 삶에서 유일한 기쁨과 위로가 된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선택을 해야 할 날이 왔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가? 또는 개를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 끝에 그는 개를 죽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별한 장소에 데리고 갔다.

그 장소에서 개를 전기봉으로 안락사시키는 여자를 알게 되었다. 여자는 죽이려는 개와 개주인의 마음도 구하려고 한다.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리 알렉산드르에게는 이번 연극의 감독 연출로는 거의 데뷔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2013년에 시험적으로 연출한 작품(20분)이 있었지만 1시간 이상 공연하는 연극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극에는 주인공 2명과 강아지만 등장한다. 주인공 역할을 사할린 체호브센터의 나탈리아 크라실로와 (수석 배우) 로만 볼타예브 배우가 맡았고 강아지역을 폴리나 파르포노바가 했는데 그



에게도 이 무대는 데뷔였다.

배우들이 역을 잘 소화하고 좋은 수준의 연기를 보여 주었고, 알렉산드르 로파틴 작곡가의 음악이 주인공들의 마음과 무대 분위기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리 알렉산드르 감독에 따르면 〈개〉작품을 연출하려는 계획은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미루게 되었다고 한다. 안토니나 도블롤류보바가 이 연극을 〈열린 무대〉기획의 일환으로 보여주는 게 어렵냐고 제의해서 이 연극이 무

대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 앞으로 정기적으로 인형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을 체호브 센터 무대에 올리는 것도 기대된다고 리 감독이 표명했다.

리 알렉산드르 감독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연극 〈개〉가 사할린의 여러 문화기관들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관람석(50여 석)은 초대 받은 사람들과 일반 관람객으로 가득찼다. 관람객들은 주인공들과 함께 고민에 빠지기도, 주인공들과 공감을 느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앞으로 창의력이 풍부한 리 알렉산드르 감독의 작품이 기대된다.

한편 환경 보호자(자연에서 쓰레기 치우기 자원봉사 운동)로서 잘 알려진 리 알렉산드르는 주변 환경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며 차세대에 모범이 되는 감독이다. 앞으로 그를 통해 무대에 오를 작품들과 삶에 대한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학생들, '살아있는 고전' 경연 심사위원들의 마음 사로잡아

사할린주 18개 지역에서 온 45명의 청소년 낭독자들이 '살아있는 고전' 전 러시아 경연 주 예선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학교 및 지방 예선 경연의 우승자들로서 '살아있는 고전' 경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올해 학생들은 발표를 위해 도스토예프스키, 파우스토브스키, 체호브, 조렌코, 야코블레프, 테피, 트벤 등 국내 및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했다. 규정에 따라 참가자들의 작품 낭독 발표 시간은 2분에서 5분까지였다. 각 참가자들의 발표는 진정성과 예술성이 뛰어났고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낭독자들은 청중들에게 정서적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며, 언어 구사력, 적합한 강세와 호흡의 올바른 배치를 표현하려고 했다. 사할린 예술전문학교의 전문가들, 유즈노사할린스크 2호 아동예술학교, 영재 발굴 및 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어린 낭독자들을 심사했다.

이번 주 예선의 우승자는 '아르텍' 국제아동센터에서 열리는 '살아있는 고전' 전 러시아 경연 결승전에 사할린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2021년에는 '살아있는 고전' 낭독 경연이 10주년을 맞는다. 사할린주 경연은 '교육' 국가 기획의 '모든 아동들의 성취' 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사할린주 교육품질평가 지역센터에서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корили сердца жюри на конкурсе "Живая классика"

45 юных чтецов из 1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Живая классика".

Они стали лучшими на школьном и муниципа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выступлений школьники выбр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Достоевского, Паустовского, Чехова, Зощенко, Яковлева, Тэффи, Твена и други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мастеров слова. Ребята всегд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Живой классике".

По регламенту выступления конкурсантов длились от двух до пяти минут. Каждое отличалось искренностью, артистичностью, трогало зрителей и членов жюри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Чтецы старались оказать эмоциона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слушателе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технику речи, правильную расстановку логических ударений и пауз.

Юных чтецов оценива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центра выявле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Победители представя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инале конкурса "Живая классика" в МДЦ "Артек". В 2021 году конкурсу чтецов "Живая классика" исполняется 10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Успех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신규 자원센터, 코르사코브의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을 돕는다

청년선도센터에 현대적 장비를 갖춘 공간을 코르사코브 지역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정해주었다. 현재 그들은 한 곳에 모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자원센터의 활동이 자원봉사자들의 사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제 조 직의 동료들이 자체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서로가 행사들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현재 코르사코브시에는 8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전쟁 참전용사들을 돕고, 애국교육에 참가하며, 한 예로 '우리 함께' 전국 행사에도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건 속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층 가운데 방역지침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택으로 생필품과 식품, 약품을 전달하고, 집안 일을 도우며, 공과금 지불도 도왔다.

2021년에는 홈스크, 티모브스코예, 토마리 시 외곽지역에도 자원봉사 개발을 위한 자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활동은 '교육'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내 자원봉사자는 1만1천 명이 넘는다고 청년사업청이 전했다.

Новый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поможет работать волонтерам Корсакова

Волонтера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ыделили помещение с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 центре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Теперь они могут собираться в одном месте и объединять усилия в помощи нуждающимся.

Работа нов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и координ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лонтеров. В частности, теперь у них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влечь к своим акциям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коллег по цеху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друг друга.

Сегодн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ее 800 добровольцев. Они помогают ветеранам войн, занимаются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участвуют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х акциях, как, например, "Мы-Вмест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олонтеры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лись на помощи тем, кто сильнее всего пострадал от ограничений — пожилым людям. Добровольцы приносили на дом лекарства, продукты, предме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могали с домашними делами, оплатой коммунальных счетов.

В 2021 году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ресурсные центры по развитию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 Холмском, Тымовском и Томарин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в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11 тысяч волонтеров,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8면에 계속)

사할린국립대 대학생 2명 감전사로 사망

지난 26일 밤 3시경 사할린국립대 한 기숙사에서 2명의 남자 대학생이 사망했다. 1학년 학생이 샤워를 하러 나가서 소리를 치자 이웃 숙소 학생들이 샤워실로 뛰어갔다. 1학년생은 쓰러져 있었고 그를 도우려고 했던 2학년생도 역시 감전사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응급에 나선 학생들과 그리고 나중에 온 의료진들이 40여 분 동안 학생들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결국 두 학생은 숨을 거두었다.

사망한 학생들은 한 방에 살고 있었고 만 18세의 1학년생은 돌린스크 지역 비코브부락 출신의 김철호 학생이다. 그를 구하려던 19세의 드미트리 드네프롭스키는 티몹스코예 지역 야스노예 마을 출신이다. 주변 동료들의 말로는 김철호(러시아 이름 알렉세이) 학생은 사할린과 자연을 매우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가 바르며, 착하고 똑똑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드미트리 학생은 배구를 잘하고, 팀의 친목을 다지는

학생이었으며 좋은 친구로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재능이 많아 인정을 받고 많은 어려움도 극복할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사망한 학생들을 잘 아는 동료들과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이 기숙사에는 중앙 온수시설이 단절돼 전기온수 장비를 사용했다. 조사 전문가들은 온수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할린 검사국이 수사를 시작하여 시설 부실 관리로 인한 사고로 사할린국립대 직원 한 명을 구속했다.

사할린국립대는 전 기숙사들의 전반적인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수리비가 문제다. 현재 기숙하는 학생들을 도시의 다른 기숙사와 숙소로 보내고, 사할린국립대의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본사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주민들과 대면 만남 재개

팬데믹이 개선된 초기부터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의 첫 대면 만남이 3월 29일 루고워에 건설계획 지역의 공공협회 회원들, 주민 대표들과 이뤄졌다.

참석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행정부 전문부서 대표를 초대했다.

외부 만남이 2시간 동안 진행된 가운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주 중심과 각 지역에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또한 앞으로 주민들과의 직접 만남이 계속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건설계획 지역과 시 지역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전 임직원 윤리경영 선포

- 윤리헌장 발표 및 노사 간 서약식

- 윤리경영 실천과 확산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전 인류사회를 이롭게 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23일 오후 제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재외동포재단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재단의 윤리경영 의지와 시대적 가치들을 반영한 '재외동포재단 윤리헌장'을 새롭게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실천 의지를 대외에 알림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윤리헌장에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화합과 전 인류사회에 기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통한 아름다운 지구 지키기, ▲공정·청렴한 업무 수행 및 제반 법규 준수, ▲고객만족 경영 실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윤리헌장 선포를 통해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청렴한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나아가 전 인류사회를 이롭게 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직원 간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선포식을 진행했다.

한편, 윤리헌장 선포식 후, 김성곤 이사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복한 나, 행복한 우리"라는 주제로 재단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전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신간] 일제 병합 이전의 군산의 상황은

오일환 중앙대 겸임교수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전북연구원)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군산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파악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저서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군산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사실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중앙대 오일환 겸임교수가 펴낸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전북연구원)이다.

이 책은 일제가 식민통치의 기본 자료로 쓴 문서 3개를 번역하고 제시했다. 일본 영사관 분관과 이사청 소속 관헌이 전북과 군산을 답사하고 작성한 '군산이사청 관내상황'(1910)과 목포영사관 군산 분관이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인 '군산사정'(1905), '전라도 북부 상황'(1900)이다.

자료는 군산의 지세와 의식주, 무역, 사업, 시장, 금융, 교통, 교육, 종교, 공동단체 등 많은 현황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이 주목할 사업으로 한지 제조, 전담의 매매, 농기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철공업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일본이 국권침탈 이전부터 군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실을 방증한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군산은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아 도시가 확대되는 동시에 수탈의 창구로 기능했다”며 “이 책은 일제가 일찍부터 군산을 주목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교수는 한국외대 일본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일본 스꾸바대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공저),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사할린 한인문제를 둘러싼 한·러·일 3국의 외교협상>(공저), <강제동원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노무자 미수금 문제>(공저) 등이 있다.

(출처: 전북일보)

다큐 사진작가 김지연, '재외동포 20년 취재기' 발간

중국·일본·러시아 등에서 소외된 재외동포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온 김지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최근 20년간의 취재 기록을 모아 '코리안 디아스포라'(눈빛)를 발간했다.

김 작가는 중국 옌벤(延邊)의 탈북자,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사할린 한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의 삶을 사진과 글로 담았다.

디아스포라는 고국을 떠나 망향과 이산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김 작가는 재외동포 중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채 힘겹게 사는 이들에 주목해왔다.

그는 1999년 중국 지린(吉林)성 옌벤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해 '꽃제비'로 불리던 탈북 소년들과 40일간 함께하면서 민족 이산의 아픔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이후 20년 넘게 망향의 아픔을 겪는 동포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만도 1만 장을 넘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해 온 고려인, 영주귀국 대상자이지만 자손을 두고 떠날 수 없어 사할린에 남은 한인 1세, 극우주의자들의 차별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등교하는 조선학교 아이들 모습 등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간추려 책에 담았다. 또 이들을 취재하며 겪은 에피소드와 후일담도 넣었다.

김 작가는 "강제이주와 재이주를 겪으면서도 공동체 정신을 지켜온 고려인의 모습에 감동했고 남과 북을 다 수용하는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에게서 통일의 희망을 봤다"며 "잊힌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엄연한 우리의 외연이기에 역사로 남기기 위해 계속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1월에 사할린주 인구감소 3.7배 증가

올 1월 사할린주에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난 가운데 주민신분등록 소에는 사망자 769명, 출생아 439명으로 자연적 인구감소는 330명이다. 2020년 유사시기에 인구감소는 90명이었다. 반면 유일하게도 쿠릴지역에서는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의 수가 많았다. 주내 혼인은 231건, 이혼은 210건이 등록되었고, 반면 2020년 유사시기에는 혼인이 185건, 이혼이 192건으로 기록되었다.

사할린주 러시아 내무국 이민문제 관리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사할린과 쿠릴에 입도자는 957명으로 이 중 42.7%가 거주권자이다. 지역을 떠난 사람은 1,225명이고 이 중 83.1%가 이전 거주지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 주내에서 주거지 변경자는 284명이고, 사할린으로 이주민 감소 수는 268명이다.

사할린 정부, 사회적 기획 공모 개시

사회적 기획 경연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청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회 연합기관과 비영리기관을 지원하고, 사할린주의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의 실시에 이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연 참가 자격은 사회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주민들의 주도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4월1일-30일까지며 현재 시급한 방안 - 사회적 서비스, 보건, 가정 지원, 모성의 책임, 부성의 책임, 아동의 성장, 청년사회운동 개발, 과학, 교육, 계몽, 문화와 예술, 역사적 기념 보존, 주변 환경보호, 민족 간 및 종교 간 협력 강화, 시민사회 연구소 개발 - 에서 공모한다.

장려금은 기획에 따른 기관의 계획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단체에 1백만 루블리 이하, 주민에게는 50만 루블리 이하이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청서는 정부 청사 1층 홀에서 '장려금과 보조금을 위한 신청' 상자를 통해 접수한다. 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무니스치체스키 거리 32로,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Хотим поделитьс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й, душевной историей "Собаки"

30 марта на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драмы-притчи «Собака» (автор пьесы – Валентин Красноголов). Пьеса была показан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Открытая сце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Пьес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одиноком мужчине,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 щенка, и очень скоро преданное животное становится его единственной радостью и утешением в жизни. Но наступает день, когда герою нужно сделать выбор: уйти с любимой работы или избавиться от собаки. После мучительных колебаний мужчина принимает решение и приходит в специальное место, где знакомится с женщиной,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утилизацией животных. Т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ытается спасти собаку, а вместе с ней – и душу ее хозяина. Очень простая история об очень непростых вещах. История, которая заставляет задумываться, размышлять, сопереживать...

Очень хорошо были подобраны артисты на роль главных героев – ведущий мастер сцены Наталья Красилов и артист Чехов-центра Роман Болтаев. Удачным дебютом на сцене стала для Полины Парфеновой роль Собаки.

Режиссером-постановщиком «Собаки» стал Александр Ли, который известен как замечательны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артист и режиссер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Мы по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у Александра, первая ли это театральная постановка в качестве режиссера-постановщика, т.к. знаем его как кинорежиссера, и почему для постановки выбрана эта пьеса.

Ли Александр, режиссер:

– Скажем прямо, как кинорежиссер, я сделал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коротких метров, выступил продюсером полного метра и был несколько раз вторым режиссером на площадке... Это немного. Что касается театральной режиссуры, почему бы и нет... Был опы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работы "Маленькие радост-



сти", это было в "Чехов-центре" году в 2010-ом, в рамках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работ (тогда, я в помощь позвал двух своих коллег Артёма Кунченко и Артемию Семичаевского, работа шла всего минут 25). Затем была моя дипломная работа в рамках предмета – работа с актёром, на ВКСР (высшие курсы сценаристов и режиссёров) в Москве (2013 год) по рассказу Шукшина "Ваня, ты как здесь?". Также минут на двадцать. Здесь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артисты Константин Кузнецов и Павел Бердников.

Идея же спектакля "Собака" вынашивалась очень давно, но... То не позволял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то на прошлой моей работе уезжали актёры и всё никак не могли выпустить постановку в свет... Но, как говорится, я не стал опускать руки и между делом решил с ребятами (обновлённым на два человека составом) вновь бросить вызов судьбе. И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Антони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Добролюбова предложила для начала показать спектакль на сцене театра кукол,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юза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Открытая сцена". И уже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о регулярном показе данной постановки. Также, надеюсь, что удастся показать спектакль и в "Чехов-центре"... Будем надеяться, что сможем поделитьс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й, душевной историей "Собака" с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зрителей! Ждём приглашения от площад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за её пределами!

Виктория БЯ

В Корсакове спортивному клубу «Единство» исполнилось 30 лет

Тренерский состав и юные тхэквондисты принима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во вторник, 30 марта. В честь юбилейного события в клубе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выплыванию 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хумсэ»,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20 воспитанников.



– Очень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здесь сегодня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ребят! Мы все не понаслышке знаем, что тхэквондисты Корсакова всегда занимают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и становятся победителями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областных и по стране, а также в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У клуба очень достойная, содержательная и классная история! Я желаю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и идти только вперед!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Единство» был основан в 1991 году. Тогда большую роль в его становлении сыграл кандидат 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по самбо и дзюдо Анатолий Кочнев, который уже в то время активно занимался развитием спорта в Корсакове. Работая в Корсаковской базе океаническ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методистом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он нашел возможность и привлёк спонсоров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здания по улице Нагорной. Вот так и началась история нового вида спорта для portового города.

– Про тхэквондо тогда мало кто знал. Этот олимпийский вид спорта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и динамичный. Поэтому мы ничуть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он нужен Корсакову. Нами был пройден большой и совсем непростой путь до момента вступления тхэквондистов в состав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На это нам понадобилось 14 лет. Согласитесь, все было сделано не зря, – отметил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атолий Кочнев.

С первог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клуба его верным и бессменн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является Ли Чун Сик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который ради любимого дела изменил направление своей подготовки со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и на тхэквондо. Сегодня под началом главного тренера в «Единстве» работают его сын и дочь – Сергей и Наталья Ли, а внуки Эмилия и Максим своими успехами по тхэквондо известны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

ного региона – это уже третье покол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выросших в стенах клуба.

– Спасибо Вам огромное за Ваш труд! Мы очень гордимся, что в нашем округе живут такие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е люди, как Вы,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Под Вашим началом работает сильная и результативная команда, которая воспитывает в детях не только любовь к спорту, но и развивает в них добро, порядочность и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люб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должайте в том же духе! – поблагодарил вице-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Григорий Голодников.

К словам поздравлений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бра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Людмила Хмыз, директор МАУ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Виктор Белопицкий 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енг Иль. Гости также отметили, что спорт очень важен для прави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а если он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жизни – значит, уже в детстве был выбран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 От воспитанников сборной группы и их родителей поздравляем тренерский состав с большим юбилеем! Спасибо за ваш труд, терпени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Пусть результаты, полученные упорным трудом, всегда впечатляют и радуют, а намеченные цели сбываются легко, – прозвучали слова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бывшего воспитанника клуба, 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одного из родителей Арсена Хагапова.

За 30 лет клуб «Единство» подготовил 5 мастеров спорта, 58 кандидатов 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и одного судь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атегории. Кроме этого, 304 спортсмена являются обладателями «черных поясов»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ступила к кардинальному решению жилищной проблемы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закладке фундаментов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10 000 квартир в столице и призвал продвигаться с проектом, несмотря на вызовы, которые «жестче, чем когда-либо», сообщ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а, отслеженные в Сеуле.

На восьмом съезде правяще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в январе Север решил построить 50 000 квартир в Пхеньяне к 2025 году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пятилет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лана,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Ким заявил на съезде, что Север построит около 70 000 квартир и решит жилищную проблему для своих граждан «раз и навсегда», поставив цель строить 10 000 квартир ежегодно до 2025 года и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же возводя-

щихся 16 000 квартир.

«Наша партия решила беспрекословно продвигаться с проектом, что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о с улучшением жизненных условий наших граждан и является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первого года выполнения решений съезда партии», – добавил он.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хоже, возложена на военных, но в проект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также гражда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ключая строительную комиссию столицы.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закладке фундаментов Ким также призвал к своевременным поставкам необходим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распорядился, что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поставок проявила «скрупулезную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ь» и каждый рабочий был обеспечен необходимым объемом материалов.

ИА РУСКОР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начинаются выплаты в рамках четвертого этапа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29 марта в РК начинаются выплаты в рамках четвертого этапа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внештатным работника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борьбу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пандемии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макс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помощи мелким торговцам и самозаняты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падения продаж, составит до 5 млн вон (4.400 долларов).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были отобраны около 2 млн 700 тыс. получателей помощи, подтвердивших факт падения продаж налогов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Они будут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ы о способе получения выплат.

С апреля в РК вводится отпуск после вакцинации от COVID-19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К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начиная с апреля, ввести отпуск после вакцинации от COVID-19 в случае наличия осложнений.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Корей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32%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ответили, что они испытали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после прививки, такие как головная или мышечная боль. При этом отпуск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 без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врачом. После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оплачиваемый отпуск после вакцинации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так и час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Такие отпуска уж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в ряде стран мира. В частности, в Нью-Йорк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четырехчасовой оплачиваемый отпуск,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такого отпуск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Японии.

Мун Чжэ Ин: Виновные в спекуляции недвижимостью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по закону

Виновные в спекуляции недвижимостью, независимо от занимаемой должности,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по закону.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29 мар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борьбы с коррупцией. Он напомн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запрещающе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лужащим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е служебное положени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личной выгоды, назвав справедливым возмущение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тем, что сотрудники Корейской земельной и жилищной корпорации, используя служебное положение, активно скупали участки земли, на которых вскоре началось массовое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с участием министров и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дающих полномочиями для борьбы с коррупцией, состоялось впервые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Мы должны серьезно отнестись к гневу и упрекам людей», — подчеркнул Мун Чжэ Ин. Он призвал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решения «структурной и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рупции, связанной с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обавил, что обяза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имеющихся активов должна бы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на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Кроме того, он высказался за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для надзора за незаконными сделками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Бывший генпрокурор лидирует в рейтинг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РК

Бывший генеральный прокурор РК Юн Сок Ёль лидирует в рейтинг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 след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Ipsos по заказу газеты «Хангук кёнчжэ синмун» среди 1.001 взрослого жителя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хотят виде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26,8% опрошенных.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 небольшим отставанием в пределах погреш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Ли Чжэ Мён, которого поддержали 25,6% респондентов. Ли Нак Ён, бывш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 на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ах мэра Сеула,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с уровнем поддержки 14,6%.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в РК состоятся в мар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В 2020 году сумма электронных платежей достигла рекорда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и связанного с не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бесконтактного общения сумма электронных платежей достиг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среднесуточная сумма электронных финансовых транзакций составила 705,5 млрд вон (624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32,7%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Это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данных об электронных платежах в 2007 году. Данные показали, что среднесу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электронных финансовых транзакций составило 16 млн 790 тыс.,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48,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Электронные финансовые операции включают все платежи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и мобильные устройства, а также покупки, совершенные с помощью электронных кредитных и дебетовых карт.

(RKI)

Корейские активисты осложнили жизнь солдат США на базе комплексов ПРО

В ходе недавнего визита в Сеул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ША Ллойд Остин пожаловался своему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коллеге Со Уку на крайне тяжел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в которых,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Пентагона, находятся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на базе комплексов ПРО THAAD. Причиной же подобных неудобств стали действия активистов, которые протестуют против нахождения систем ПРО США в Корее и блокируют подъезды к базе. Об этом со ссылкой на свои источники в военных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сообщило 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Чосон Ильбо".

Напомним, что комплексы ПРО США THAAD размеще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округе Сончжу, что в 210 км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Сеула. Они находятся там с 2017 г. и стали в свое время причиной серьезн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США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комплексы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нейтрал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ной угрозы, тогда как Китай и Россия полагают, что системы ПРО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для разрывания глобальной системы ПРО США и нарушения ракетно-ядерного паритета в пользу Вашингтона.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этот вопрос вызвал немало споров. Находившееся ранее у власти консерватив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под давлением США в итоге согласилось на размещение комплексов, что привело к резкому ухудшен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екином и введению Китаем против Южной Кореи де-факто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Как отмечает изда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тема была поднята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США в ходе его визита в Сеул 17-18 марта, когда он вместе с госсекретарем США Энтони Блинкеном провел встречу в формате "2+2" с главами МИД и обороны РК. Поводом для недовольства главы Пентагона стали действия корейских активистов, где преобладают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размещения базы THAAD и блокируют подъезды к ней, мешая подвозить снаряж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прочие грузы. В результате около 400 солдат США,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ий обслуживающий персонал базы вот уже почти четыре года живут либо в здании бывшего гольф-клуба, которое сильно обветшало, либо во временных контейнерах, которые пришлось переоборудовать под казармы. Военные пытались развернуть там стройку и возвести нормальные здания для казарм и самой базы, но грузовики с оборудованием не пропускают протестующие, которые перекрыли единственную сухопутную дорогу к базе и пропускают лишь небольшие партии и автомобили.

В итоге солдаты и офицеры США живут в условиях, которые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ША Остин назвал "неприемлемыми". Даже топливо для генераторов и основную часть грузов приходится доставлять на вертолетах, но с крупной техникой так поступить н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и не позволяет разверну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к отмечает издание, ссылаясь на источники в военных кругах, условия жизни на базе уже давно стали притчей во языцех: в зимнее время постоянно происходят перебо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течение года часто не поступает теплая вода, не получается также в нормальном порядке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и вывозить мусор, потолки в контейнерах и основном здании обветшали и постоянно протекают. В 2018 г., когда протестующие объявили о "полной блокаде базы",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США пришлось питатьс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ухими пайками,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только на марш-бросках или во время учений. В ито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РК удалось уговорить протестующих пропускать машины с едой, что ликвидировал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локаду" базы, но



Фото: YONHAP/EPA

ост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остались в силе до сих пор.

По версии "Чосон Ильбо", американский министр Ллойд Остин не стеснялся в выражениях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Вы так и собираетесь оставлять ситуацию вокруг базы без изменений?", "Люди живут там в неприемлемых условиях!", "Это непростительно для страны,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оюзником!" — приводит издание со слов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ов высказывания главы Пентагона.

Ллойд Остин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проблемы в Южной Корее существуют и на других объектах. В частности, активисты регулярно не допускают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и технику на стрельбища в районе городов Пхочхон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 и Пхохан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жалуются на шум от стрельбы и блокируют доступ к полигонам. "Министр Остин сказал, что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Корея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а решить", — цитирует издание одного из источников.

В целом ж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о главе с Мун Чжэ Ином оказалось в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Мун изначально выступал против размещения комплексов THAAD США в Корее, но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до его президентства. Тогда же консерваторы во главе с Пак Кын Хе успели ввезти и часть техники для батареи THAAD. В итоге Мун Чжэ Ину приходится лавировать между давлением Китая, желанием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оюзническими обязательствами перед США. После прихода Мун Чжэ Ина к вла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хотело применять силу против протестующих, которые круглосуточно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блокируют подъезды к базе. В итоге, похоже, что терпение кончилось у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и глава Пентагона решил поставить вопрос "ребром".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отказались подтверждать, но и не опровергли сообщение газеты "Чосон Ильбо" об этом споре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но при этом в общем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проблема существует и она обсуждалась. "Я не могу подтверждать какие-либо детали по поводу высказываний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Остина. Но имели место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воду вопроса об обеспечении условий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Ш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К и США тесно общались и общаются по поводу проблемы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пребывания на базе в уезде Сончжу,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ия условий для тренировок солдат США. Мы также продолжаем общаться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живущими в районе военных объектов)", — заявил 29 марта в ходе регулярного брифинга для журналистов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Пу Сын Чхан.

Олег Кириянов (Сеул, РК)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П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ся Континентальный кубок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80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з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Киргизии, Японии, Аргентины, Чехии, Эстонии, Дании, Словении, Австрии, Германии, Болгарии и Канады.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состоялась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 Мы в шестой раз приняли у себя прести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 этап Кубк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таких событий у нас было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Чтобы здесь кипела спортивная жизнь. Чтобы у зрителей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видеть выступления горнолыжников, а у спортсменов 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нтинентальный кубок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Far East Cup) — это ежегодный цикл престижных горнолы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д патрон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по ее правилам. Сильнейшие спортсмены выявляют победителей в общем зачете и отдель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среди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а кубк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шают рейтинг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Так как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отменены мно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обного уровня, интерес горнолыжников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метно вырос.

—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и проведение. Шикарная погода, великолепная трасса. Спасибо за прием, тепло и заботу, — поделился вице-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России Валерий Цыганов.

— Здесь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есть хорошие гостиницы, отличные трассы, надо только доделать систем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На мой взгляд, Сахалин вполне способен провести юниорский чемпионат мира. Это около 30 стран, 500 участников вместе с тренерами 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ервисной службы, — отметил технический делегат соревнований Алексей Орлов.

Отметим, на склонах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ят соревн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в частности,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среди лиц с поражения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пандемия не мешает широко отметить День Победы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Победа»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отпраздновать 9 мая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 75-летие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мы праздновали в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разгула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мы видели только на экранах, мы не смогли пригласить сотни людей на военный парад. Но теперь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нормализовалась, и мы снова готовимся праздновать 9 мая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День Победы в области пройдут военные парады и праздничные концер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салют. На острова вернетс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ойдут по улицам с портретами погиб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о дворах ветеранов устроят персональные торжества — героев будут поздравлять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Такой формат поздравлений сохранитс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под запретом. Останутся также «Окна Победы» и другие акции, полюбоившиеся островитянам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т год, как и прошлый Год памяти и славы, запомнится множеством событий в честь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Череду мероприятий начнется с 15 по 18 апреля.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оказали честь открыть Всероссийскую «Вахту памяти». Она знаменует старт поисковых работ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 открыти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оисковики, молодежь, эксперт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Нам передадут личные вещи участник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Филиппа Захаровича Мишкорудного. Его останки обнаружи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там он и захоронен. А родственники героя нашли в Корсакове,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В конце мая поисковик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соберутся в Смирновском районе на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экспеди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Он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оисках останков воинов, павших во врем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С 13 по 19 августа Сахалин во второй раз прим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форум «ОстроVa». Год назад слет прошел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 втором форуме 70 процентов мест участников займет молодеж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 География расширится и охватит на этот раз не толь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о и Холм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Смирновский районы. В программ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ри направления: патриотизм, экология и креативные индустрии. Ярким событием слета станет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 селе Роцино.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всероссий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ят со значительным учас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низилась смертность от туберкулеза

24 марта во всем мире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борьбы с туберкулезо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лагодаря новым методам лечения и широкой диагностике от эт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спасают больше жизней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2020 году смертность от туберкулеза составила 8,4 на 100 тысяч жителей, в 2019-ом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равнялся 10.

Житель Смирн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 в стационаре областного туберкулезного диспансера лечится уже второй месяц. О своем заболевании узнал после флюорографии.

— Лет 15 не был у врачей. А тут желудок прихватило, сначала одно проверил, потом врач отправил в рентген-кабинет. Как только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лучили результаты, меня тут же нашли и положили в диспансер, — поделился пациент.

Такие истории не редкость в стенах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Специалисты говорят, что не допустить развития заболевания может только ежегод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выявлению патологий у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 Количество рентген-обследований, компьютерных томографий в этом году превысило ежегодные показатели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Этого требовала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Попутно были выявлены сотни сопутствующих заболеваний, в том числе туберкулез легких. Люди теперь знают о своем диагнозе и приступили к лечению,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фтизиа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юдмила Конотопец.

— В районах будет усилена выездная работа. Не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дойдет до поликлиники, чтобы пройти флюорографию. Значит, будем обеспечивать доставку спецтехники в отдаленные районы 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Чтобы выявлять заболевания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во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ах региона установлено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иобретены передвижные установки для работы в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Диагностика и лечение туберкулез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бесплатно.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еороликов «Мы»

Начал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первый 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еороликов «Мы»,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н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Федер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онлайн-кинотеатром «Ноль Плюс»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Цель конкурса —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РФ, формирование у молодежи гражданс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одине, ее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национальным традициям.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могут стать граждане, коллективы авторов, а также теле- и киностудии. Для своих видеороликов им предлагается выбрать одну из тем: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гласие в России»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Чтобы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стязании люби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определиться с темой и номинацией, придумать интересную идею, создать и смонтировать ролик — игровой, анимационный, репортажный ил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а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тудий и авторов — фильм. Затем свою работу следует загрузить в файлообменник и до 31 июля заполнить заявку на сайте: mykonkurs.rf.

С 15 сентября по 30 октября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енародном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за лучший ролик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Победителями признаются те участники, чьи работы получают больше «лайков». Оценивать работы также предстои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жюри. Эксперты будут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следующие критерии: степень отражения в ролике т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л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ценность; аудиовизуальное качество;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4 ноября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в очном и онлайн форматах. Они получат дизайнерские статуэтки и денежные премии.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присылаемых работ,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видеокурс по созданию роликов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тематику. Мастер-классы опубликуют в открытом доступе на YouTube-канале конкурса «Мы» 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онлайн-кинотеатре «Ноль Плюс» (zeroplus.tv).

Также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пройдет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Фотофлешмоб «Мы». Ее цель — собрать изображения гла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Полученные фотографии позволят создать уникальный ролик, который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 образ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России. Видео получи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телеканалах в День России — 12 июня 2021 года.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еороликов «Мы»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mykonkurs.rf. Офи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wekonkurs>. Куратор конкурса от федерац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настасия Николаевна Гамова, e-mail: wekonkurs@gmail.com.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аст старт экспедиции «Инновационная Россия-2021»

В рамках нее инвестор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енчурного рынка проедут через всю страну от Сахалина до Калининграда и от Мурманска до Сочи,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снователями стартапов, инвесторам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ми, институтами развития. Экспедиция соберет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по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экосистем и пройдет в 2 этапа —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Стартует «Инновационная Россия» 2 апреля в 17:00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десь состоится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стартапов и инвесторов. Основател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и те, кто только еще задумывается 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е, узнают, как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венчурных фондов, где взять первые деньги на свой проект и каким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сейчас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 инвестор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фондов и теми, кто задумывается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стартапы, обсудят варианты работы с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после пандемии.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айте экспедиции: <https://eir21.ru/yuzhno-sakhalinsk/>.

Далее экспедиция проедет по другим город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траны. Ее участники проведут 85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более чем 1000 стартап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стретят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40 регионов, посетят 120 технопарков,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ов и объектов иннов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местным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ми и инвесторами. В частности,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ы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господдержк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исследоваться объекты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экосистем для выявления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и точек роста.

Итогом экспедиции «Инновационная Россия» станет больш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ого представят в ноябре на финаль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Жители Шахтерска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в современном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Долгожданный для поселка объект строят на улице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в нём мини-футболом, баскетболом, волейболом, большим теннисом и бегом. В отдельном помещении предусмотрят тренажеры. В течение дня ФОК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до 150 человек. Сегодня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гордимся, что так мног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любят спорт, занимаются им и прививают эту страсть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тренировки доступными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Вот такие универсальные залы — отличное для этого решение. Строители молодц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окончания рабо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телям комплекса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душевые комнаты и раздевалки.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я предусмотрят отдельные кабинет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завершено на четверть: готов фундамент, проложены наружные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выполнен монтаж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установлены ограждающие конструкции стен и кровли, а также устроена железобетонная плита пола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замены покрытия, который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ен в проекте. Подрядчик предлагает вместо прорезин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уложить паркет, поскольку он больше подходит для спортивных игр с мячом.

— Идем по плану, сдадим объект в этом году.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ы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 доложил губернатору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митрий Татарников.

Отметим,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Шахтерске из област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направлено 11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бъездная дорога свяжет три федеральные трассы Сахалина

Этот вопрос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с врио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дорожного агентства Романом Новиковым.

— Принят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соединяющей федеральные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Я дал поручение подготовить обосн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й и начинать отводы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еобходимо приступить к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и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бъездная дорога для нас крайне важна, она позволит разгрузить потоки, прежде всего,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з портов, а значи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будет меньше пробок и воздух станет чище. Здоровье и комфорт сахалинцев для нас превыше всег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оценк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отяженность новой дороги составит около 45 километров, трасса пройдет по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 문학·미술 전문 유튜브 채널 '리드 러시아'

'그림으로 읽는 러시아' '프롬나드 인 러시아' 저자 김은희 교수가 소개하는
러시아 문학과 미술

러시아 문학과 미술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다. <그림으로 읽는 러시아>, <프롬나드 인 러시아>의 저자 김은희 국민대 초빙교수가 러시아 문학과 미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소개하기 위해 개설한 '리드 러시아(Read Russia)'이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리드 러시아(Read Russia)'를 개설한 김은희 교수

김은희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월간 '한국산문'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국산문작가협회,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러시아에서 문학은 서구에서의 문학보다 훨씬 큰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19세기 이래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적 기능에서부터 철학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 문학은 폭넓은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러시아 문학을 살피고 소개하는 작업은 러시아 정신의 정수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작업이다.

그런 면에서 '리드 러시아'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러시아 작품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간결하게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작품은 고리키의 자전적 삼부작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 <나의 대학>,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이반 부닌의 노벨상 수상작 <아르세니예프의 인생>, 유리 나기빈의 <메아리>와 <청개구리 이야기> 등이다.

고리키의 생애를 설명하는 콘텐츠도 전문가다운 면모가 엿보이는 영상과 내용이 돋보인다. 한국에서는 고리키가 흔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고리키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이해였다. 그러나 '리드 러시아'는 고리키의 작가적 역량과 핵심 사상에 주목한다. 고리키의 작품 세계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적 삼부작 안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그림을 소개한 영상들도 눈길을 끈다. 러시아 회화는 19세기 이등전람회를 거치면서 민중의 삶과 애환에 주목한다. 야로센코의 '어디나 삶'은 유형수를 실어 나르는 열차 한 칸의 모습을 옮겨 놓은 그림이다. 러시아 전통 축제 '마슬레니차'를 소재로 한 그림과 그 축제의 배경 설명 또한 흥미롭다.

김 교수는 그림에 담긴 당대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인의 생활과 풍습, 그 안에 담긴 시대상, 그들의 희로애락과 희망을 읽는다. '리드 러시아'는 러시아 그림을 통해 러시아인의 삶을 읽어내고 있다.

1990년 한-러 수교가 체결된 이후,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성큼 다가왔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으며 학문적 성과와 러시아에 대한 이해 역시 이전 에 비해 깊어졌다. 유튜브 채널 '리드 러시아'는 지금껏 축적된 러시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리드 러시아'가 러시아를 읽어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혀 주리라 기대해본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시행

올해 청소년 부문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흥익인간의 가치를 해외에서 실천한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안' 주제 돋보여...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은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를 시행함에 따라, 4

월 1(목)부터 5월 31(월)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시행된 문학 공모 사업이다.

- 작년 경우 총 59개국에서 696명이 참가해 1,329편의 작품을 응모함.

공모 부문은 성인 3개(시·단편소설·체험수기), 청소년 2개(중고등·초등 글짓기), 입양동포 1개(입양수기) 총 6개로, 거주국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경우 5년)는 응모할 수 있다.

시상내역은 수상자 총 34명과 한글학교 2개교 대상 4천여만 원이다.

- 성인과 입양동포 부문 대상 300만 원, 한글학교 특별상 200만 원 등

- 한글학교 특별상은 청소년 부문에서 수상자와 본심 진출자를 많이 배출한 한글학교에 수여.

김성곤 이사장은, "올해 청소년 부문의 새로운 응모 주제는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안'으로서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흥익인간의 정신을 갖고 각 지역에서 실천한 아름다운 활동과 경험을 담은 글을 많이 응모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말했다.

응모 접수는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제23회 재외동포 문학상

2021. 4. 1.(목) ~ 5. 31.(월)

한국시간 기준 - 접수: 코리안넷 (<http://www.korean.net>)

특히 멀리 떠나 해외에

분들의 가슴 속

있는 시의 샘플

참으로 소중한 다.

시는 인간

마음 속에

확은 샘플

다. 그

가 지

전네 주는

응모자격

성인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초등 부문(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중·고등 부문(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입양동포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공모부문 · 주제

성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시, 단편소설: 자유
체험수기: 이민과 정착 과정 중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

청소년 (중고등, 초등):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안'

한글 학습·한국문화 체험 경험담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경험담
자랑스러운 세계시민(글로벌 코리안)인 나와 친구들
기타 자유 주제

입양동포: '내가 나누고 싶은 입양이야기'

응모자(입양동포 또는 자녀) 본인의 경험담

※ 응모시 공고문의 원고 분량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역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입양동포(입양수기)
대상 (부문별 1명) · 300만원, 상패	대상 (1명) · 300만원, 상패
우수상 (부문별 2명) · 200만원, 상패	우수상 (1명) · 200만원, 상패
佳作 (부문별 3명) · 50만원, 상패	佳作 (2명) · 50만원, 상패

청소년(중·고등 / 초등)	한글학교
대상 (부문별 1명) · 100만원, 상패	특별상 (2개교) · 200만원, 상패
우수상 (부문별 2명) · 50만원, 상패	
佳作 (부문별 3명) · 30만원, 상패	

접수방법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코리안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

문의(유선 및 이메일)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T. +82-2-3415-0177 E. culture@okf.or.kr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러시아어 및 영어로 총체적 받아쓰기 대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초대

제10회 러시아어 및 영어 총체적 받아쓰기 대회가 4월 10일에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2016년부터 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지역 박물관이 대규모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박물관 측에서는 참가자들이 맞춤법을 잘 기억해 쓰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150석의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며 받아쓰기는 처음으로 영어와 러시아어 두 개의 언어로 진행된다. 전례대로 받아쓰기 대회 참가를 위해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일은 3월31일이다. 전과 같이 모든 활동을 채점하고 결과는 개인 계정으로 발송된다.

영어 받아쓰기 채점에서는 철자법 오류에서만 점수를 깎는다.

대회는 4월10일 오후 4시에 개최되며, 영어 받아쓰기 대회는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할린주 받아쓰기대회는 모국어에 흥미를 갖게하는 사람들과 모국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진행되었다.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행사장 관리자와 출제자, 언어학 전

문가들이 진정한 교양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원봉사에 가입해 받아쓰기 대회 조직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받아쓰기 대회 운영자인 아나스타시야 스테판넨코(stepanenko_aa@mail.ru)에게 문의 바람.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написать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на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В 10-й раз напишут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10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016 года масштабно акцию проводят региональные музе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бласти. В этот раз музеи предоставят порядка 150 мест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оверить, хорошо ли они помнят правила правописания. Впервые диктант состоится на двух языках –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Традиционно для участия в тотальном диктант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обходима регистрация. Она открывается 31 марта. Все работы по традиции будут проверены, а результаты – загружены в личные кабинеты участников. При проверке английских диктантов оценки будут снижаться только за орфографические ошибки.

Акция пройдет 10 апреля в 16:00.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по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состоится в 17:30,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 2012 года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энтузиаста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м безразлична судьба родного языка. На волонтерской основе координаторы площадок, диктаторы, эксперты-филологи устраивают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грамотности. Стать организатором диктанта и войти в число

его волонтеров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О том, как это сделать, можно узнать у координатора тотального диктанта Анастасии Степаненко: stepanenko_aa@mail.ru.

사할린 주민들, 음유시인의 노래 공연으로 만우절 기념

세계 만우절을 맞아 사할린 가수들의 창작곡 콘서트가 4월2일 18시30분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창작곡의 강변'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저녁 프로그램에는 '사할린 창작곡'창작연합회와 '와리안트' 창작곡 연주 그룹이 무대에 나선다. 공연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하바롭스카야 거리 78)의 강당에서 열리며 입장은 무료다. 전화 문의는 8(4242) 4525-02로.

День смеха сахалинцы отметят концертом бардовской песни

Концерт сахалинских авторов-исполнителей, приуроченный ко всемирному Дню смеха, состоится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2 апреля. Начало – в 18:30.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ерега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В программе вечера заявлены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ПОстров" и группы исполнителей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Варианты", сообщает ИА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СахОУНБ.

Концерт пройдет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СахОУНБ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78).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4242) 4525-02.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